

다는 것은 브라질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Angra 1 號機 發電機(WH製) 燒損事故

Angra 1 號機의 發電機 故障으로 또다시 플랜트를 停止시키게 됨에 따라 이 플랜트의 所有會社인 Furnas Centrais Electricas社는 이 發電機를 交替할 것을 考慮中이다.

이 유닛은 1986年 11月 22日에 2次 燃料週期가 始作됐으나 主發電機의 A相 捲線의 燒損事故로 12月 10日 停止됐었다. 이 유닛의 NSSS와 터빈發電機를 모두 供給한 WH社는 12月부터 3月까지 이 發電機를 補修하고 이 補修作業에 대해 하자保證을 한바 있다. 이 유닛은 3月 27日에 再始動試驗을 實施했었으나 터빈發電機의 振動으로 4月 3日 再次 始動하여 6月 24日 發電機에서 또다른 短絡事故가 發生할 때까지 發電을 繼續했었다.

Furnas社는 事故原因을 發電機의 燒損事故로 보고 그 損傷程度를 調査中이나 相當히 클 것으로 豫想된다고 한 消息通이 傳했다. WH社의 한 代辯人은 이 補修作業의 適格性與否는 이 時點에서 論議할 問題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精

通한 消息通은 Furnas社는 WH社側 과 이 發電機를 交替해 주되, 新품을 製作하는 것을 기다리기 보다는 取消된 프에르토리코 發電所用으로 이미 製作해 놓은 것으로 代替해 줄 것을 希望하고 있다고 傳했다. 한편 WH社 代辯人은 自己네 會社가 이러한 交替工事を 위해 競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메이커 中の 하나라고 말했다.

最近 몇달 동안 이곳 매스콤에서는 이 國營電力會社가 Angra 1 號機의 失望의인 性能에 대해 WH社側과 某種의 價格折衷 내지 損害賠償을 協商中이라는 所聞이 자주 들렸었다. 이 發電機는 長期間의 試運轉過程에서 자주 trips되어 이곳에서 「개똥벌레」라는 別名까지 붙었었다. 요사이 다시 들고 있는 所聞에는 Furnas社가 WH社를 相對로 5千萬弗의 損害賠償請求訴訟을 提起할 것이라고 하며 이미 뉴욕州 南部地方法院에 이 訴訟이 接受되었다는 所聞도 있으나 아직 確認되지는 않았다. WH社는 앞으로 協商이 繼續될 것임을 是認했으나 同社로서는 플랜트性能의 改善方法을 集中的으로 摸索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消息通들은 브라질의 現在의 財政危機때문에 WH社와 어떠한 妥結이 이루어지도록 Furnas社에 대한 壓力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 도

安全防護條件附 原子爐 輸入은 不可

라지브 간디 印度首相은 지난 6月末 印度의 高位科學委員會의 勸告書를 갖고 모스크바를 訪問했다. 이 勸告書에는 蘇聯이 嚴格한 安全防護措置를 할것을 固執하지 않고 核燃料를 中斷됨이 없이 繼續的으로 供給할 것을 保障한다면 印度가 蘇聯에서 提議한 原子力플랜트 1基를 受諾하여도 좋을 것이라고 돼 있다. 核非擴散條約(NPT)의 受任國이며 安全防護에 대해 매우 콧대가 센

것으로 이름이 나 있는 蘇聯이 印度에 대해서는 例外的인 措置를 取할 것이라고 觀測通들은 보고 있다.

昨年 가을 고르바초프 蘇聯首相은 有利한 借款條件으로 印度에 2基의 VVER-440 原子力플랜트를 提供하기로 한 1979年의 오피를 更新하였다. 印度의 原子力에너지省(DAE)은 國產 加壓 重水爐 1基의 開發資金을 轉用하는데는 反對했

다. 印度는 1974년에 核爆發試驗을 施行한 後로는 Tarapur BWR 플랜트에 대한 核燃料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政府內의 다른 部署에서는 高질적인 電力不足을 憂慮하면서 蘇聯의 오폐를 考慮하기를 願했다.

原子力에너지省과는 別途로 간디首相은 印度의 最高位科學者의 한사람인 Menon 教授가 이끄는 한 委員會에 대해 이 蘇聯의 오폐와 프랑스로부터의 豫備的인 오폐를 檢討할 것을 指示했다. Menon 委員長은 「우리 委員會의 目標은 우리의 原子力프로그램을 위해 어떠한 外國資本도 받아들인다는 基本政策을 세우는 것이며 2000년까지 10,000MW로 原子力設備을 늘리기 위한 印度의 原子力프로그램에 必要한 投資規模를 檢討하는 것」이라고 했다.

간디首相은 6月 29日 뉴델리에서 「우리가 蘇聯이 오폐한 原子力플랜트를 檢討하기는 했으나 蘇聯의 安全防護措置는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고 印度가 받아들일수 있는 安全防護措置는 蘇聯이 이것을 國產 原子力플랜트에까지 擴大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前提돼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Menon 委員長은 그의 委員會에서는 다음의 4가지 條件이 充足될 때에 限해서 印度는 外國의 原子力技術을 購買하는 것을 考慮해야 한다고 結論지었다고 말했다. 이 4가지 條件이란 印度 自體의 原子力프로그램에 支障을 주지 않을 것, 印度가 NPT에 加入하도록 强要 當하지 않

을 것, 長期的인 核燃料供給에 대한 確約이 돼 있을 것, 어떠한 安全防護措置도 印度 自體의 原子力프로그램에 影響을 주거나 契約期間 滿了後에 까지 延長되거나 또는 副產物이 使用되는 施設에 까지 擴大된다는 등의 「永續」 또는 「强制」 條項이 包含돼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등이다. Tarapur BWR에 대한 論爭에 言及하면서 Menon 委員長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容認하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가 窮地에 몰려 있지 않다는 것을 認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오폐에 대해서는 印度 原子力委員會 委員長 Srinivasan 씨는 「프랑스가 自國의 生産容量을 消化시킬수 있는 다른 나라들을 物色中」이라고 말하고 「이미 兩國間에 協力할수 있는 分野를 摸索하기 위한 非公式的인 協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消息通들은 印度가 價格을 낮추기 위해 蘇聯과 프랑스 兩側과 商談을 벌일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프랑스의 原子力産業界가 위축돼 가고 있는 自國의 原子力플랜트産業의 不況을 克服하기 위해 積極的으로 輸出市場을 찾고 있으며 印度를 가장 有望한 商談相對國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럽供給業者들은 大體的으로 蘇聯의 낮은 利率과 루비貨支拂 條件으로 돼 있는 蘇聯의 借款과 競爭할 수 없을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原電入札에 WH와 MHI 共同參加

인도네시아의 原子力發電프로젝트에 대해서 프랑스·西獨 콘소시엄과 경쟁하고 있는 일본의 Mitsubishi重工業(MHI)도 콘소시엄을 형성했다. MHI는 財政的인 이유로 미국의 Westingh-

ouse Electric Corp. 와 콘소시엄을 만들었는데 圓高현상과 아울러 달러貨 기준 入札이므로 WH 側에 有利하며 美日間 무역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